

『素問·脈解』의 三陰三陽 月 配屬과 經絡 表裏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방 정 균¹

¹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Sy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assignment of the Three Eums and Yangs to calendar in the 『Somun · Make'ae』 and the exterior interior relationships of the Meridian

Jung-Kyun Bang¹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By comparing the correspondence of Three Eums and Yangs (三陰三陽) to calendar in 『Somun · Make'ae』 with twelve principal divinatory symbols (十二辟卦), this paper intends to explain the exterior and interior of meridian system using the phenomena of the trigrams from *Juyeok* (卦). It also tries to relate the phenomena of the trigram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iginal Gi (本氣) of Three Eums and Yang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ree Eums and Yangs assigned to twelve principal divinatory symbols.

Methods : This paper compares the correspondence of Three Eums and Yangs to calendar in 『Somun · Make'ae』 with twelve principal divinatory symbols. By this, it traces the making of the exterior and interior relationship between Taeum (太陰)-Yangmyeong (陽明), Soeum (少陰)-Taeyang (太陽), and Gworeum (厥陰)-Soyang (少陽) through the phenomena of trigrams assigned to Three Eums and Yangs. It also interprets Three Eums and Yangs assigned to twelve principal divinatory symbols, using the original Gi of the six atmospheric influences (六氣).

Results and Conclusions : Three Eums and Yangs in 『Somun · Make'ae』 signify the six meridians of the leg. Soeum (少陰) is assigned to October in 『Somun · Make'ae』, but it is more appropriate to assign it to July. If Soeum (少陰) is assigned to July, Three Eums and Yangs have phenoma of the trigrams with Eum and Yang lines (陽爻) counter to each other, and can be explained as the exterior and interior relationship. Lastly, in case of Three Eums and Yangs assigned to twelve principal divinatory symbols, the phenomena of the trigrams can be interpreted as the original Gi of Three Eums and Yangs.

Key words : 『Somun · Make'ae』, Three Eums and Yangs (三陰三陽), twelve principal divinatory symbols (十二辟卦), original Gi (本氣)

· 교신저자: 방정균, 강원 원주시 우산동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Tel. 033-730-0666, E-mail : bjkdcw@sangji.ac.kr
· 투고 : 2006/11/07 · 심사 : 2006/12/05 · 채택 : 2006/12/07

I. 序 論

『素問·脈解』에서는 三陰三陽을 一年 가운데 여섯 달에 배속을 시키고, 아울러 각각의 병증을 나열하였다. 근자에 들어 本篇에 대한 주석가들의 해석이 經脈으로만 해석하여 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少陰의 月 配屬에 대해 다른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에 논자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를 중심으로 本篇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本篇에서 제시한 三陰三陽의 經絡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本篇의 내용을 十二辟卦와 六氣의 속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經絡의 表裏 관계가 十二辟卦를 통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또한 三陰三陽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해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으리라 추측해 본다.

II. 本 論

『素問·脈解』에서는 三陰三陽의 六氣盛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經脈의 病變을 설명하고 있다. 本篇에서는 三陰三陽을 각각 太陽-正月, 少陽-九月, 陽明-五月, 太陰-十一月, 少陰-十月, 厥陰-三月에 배속을 하고, 月 配屬에 근거하여 陰陽의 盛衰변화를 살피고 있다¹⁾. 黃龍祥은 本篇에 대해 足三陰三陽 脈候에 대한 해설로, 漢代에 성행한 卦氣說의 十二消息卦(十二辟卦)로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에서 本篇에 대한 역대 주석가들의 해석에 대해 經絡學說로 억지로 해석하여 本篇의 本意가 드러나지 못하게 되었다²⁾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黃龍祥의 주장은 일면 타당한 점이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本篇의 내용을 十二辟卦에 근거하여 해석하

여야 한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黃龍祥 본인도 十二辟卦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그쳤을 뿐, 本篇의 병증을 十二辟卦의 의미를 이용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本篇에 대해 역대 주석가들이 오로지 經脈學說로만 설명했던 것은 아니다. 물론 馬蒔의 경우 經脈의 流注로 병증을 설명하는 경향성이 농후하지만, 三陰三陽의 속성과 十二辟卦의 의미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³⁾. 이외에 王冰⁴⁾, 吳崑⁵⁾, 張介賓⁶⁾, 張志聰⁷⁾, 高世栻⁸⁾ 등 모든 주석가들이 병증 설명에 있어 十二辟卦의 의미와 六氣의 속성, 그리고 해당 經脈의 유주로 각각의 병증을 설명하고 있다. 셋째, 三陰三陽의 六氣 속성에 대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듯이 本篇의 내용은 十二辟卦의 의미와 六氣의 속성 및 經脈의 유주를 통해 그 병증을 설명해 낼 수 있다.

이에 논자는 『素問·脈解』에 제시된 내용 가운데 다음의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해 보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1. 經絡의 의미

經絡의 의미란 本篇에서 제시된 三陰三陽이 手經과 足經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足六經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에 대해 모든 注家들이 예외 없이 足六經으로 本篇에서 제시된 증상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三陰三陽으로 제시된 것을 足六經으로 인식하는 예는 『素問·熱論』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素問·熱論』에서는 傷寒에 의한 熱病을 설명하면서 邪氣를 감수하는 원칙에 대해 1日-太陽, 2日-陽明, 3日-少陽, 4日-太陰, 5日-少陰, 6日-厥陰으로 기재하고 있다¹⁾. 이상과 같은 『素問·熱論』의 三陰三陽에 대해 모든 주석가들은 예외 없이 足六經의 유주를 이용하

여 병증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黃帝內經』뿐만 아니라 三陰三陽으로 病機를 설명하는 『傷寒雜病論』의 경우에서도 三陰三陽의 의미를 足六經으로 이해⁹⁾하는 경향성이 높다. 그렇다면 三陰三陽을 足六經으로 이해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丹波元簡은 張介賓의 설명을 인용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足經은 上下로 연락되면서 인체 전신을 周行하지만, 手經의 경우는 그 유주 노선이 인체 전신을 아우를 수 없기 때문¹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지금까지 정리된 十二經絡의 穴數와 그 분포부위를 살펴보다라도, 手經에 비해 足經의 穴數가 월등히 많다. 또한 유주하는 부위에 있어서도 足六經은 인체 전신을 周行하는데 비해, 手六經은 上肢부위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할 때 『素問·脈解』의 三陰三陽은 足六經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 少陰의 月 配屬과 三陰三陽의 表裏관계

『素問·脈解』에서는 少陰을 十月에 배속시키고 있고, 이러한 배속에 대해 역대 주가들은 별도의 異見을 달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黃帝內經太素』(以下 『太素』로 略稱)에서는 少陰을 七月에 배속시키고 있다¹¹⁾. 이에 대해 이용범은 『素問·脈解』와 『太素』의 少陰 月 配屬이 다르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太素』에 근거하여 少陰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¹²⁾. 그러나 『素問·脈解』에 기재된 少陰의 十月 배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 七月에 배속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논자는 본편의 내용을 十二辟卦로 설명할 수 있다는 黃龍祥의 주장에 근거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素問·脈解』에 기재된 少陰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少陰所謂腰痛者, 少陰者, 腎也. 十月萬物陽氣皆傷, 故腰痛也. 所謂嘔欬上氣喘者, 陰氣在下, 陽氣在上, 諸陽氣浮, 無所依從, 故嘔欬上氣喘也. 所謂色色, 不能久立久坐, 起則目眩無所見者, 萬物陰陽不定, 未有主也. 秋氣始至, 微霜始下, 而方殺萬物, 陰陽內奪, 故目眩無所見也. 所謂少氣善怒者, 陽氣不治, 陽氣不治, 則陽氣不得出, 肝氣當治而未得, 故善怒, 善怒者, 名曰煎厥. 所謂恐, 如人將捕之者, 秋氣萬物未有畢去, 陰氣少, 陽氣入, 陰陽相薄, 故恐也. 所謂惡聞食臭者, 胃無氣, 故惡聞食臭也. 所謂面黑如地色者, 秋氣內奪, 故變於色也. 所謂欬則有血者, 陽脈傷也, 陽氣未盛於上, 而脈滿, 滿則欬, 故血見於鼻也.¹⁾

이상에서 나타나듯이 『素問·脈解』에서는 少陰을 十月에 배속시키고 있다. 十月은 十二辟卦 가운데 坤卦(☷)에 해당이 되어 모두 陰爻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少陰을 十月에 배속할 경우 少陰의 病機를 설명하는 “陰氣在下, 陽氣在上”의 구절과 坤卦의 卦象이 서로 호응하지 않게 된다. 또한 본문에서는 少陰을 가을의 時令에 배속하고 있는데 十月은 겨울에 해당이 되어 문장에 모순이 발생한다.

이에 『太素』의 주장대로 少陰을 七月에 배속시키게 되면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이 해결이 된다. 즉, 첫째 七月은 가을이 시작되는 달이므로 본문에서 秋氣를 언급한 것과 상호 호응이 된다. 둘째, 七月은 否卦(☷)에 해당이 되어 본문에서 “陰氣在下, 陽氣在上”이라고 표현한 것과 卦象이 서로 연계가 된다. 셋째, 본문에서 “少陰者, 腎也”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腎”은 “申”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므로 “申”字로 바꿀 경우, 申月은 七月에 해당이 된다. 이상에서 제시한 내용을 근거로 할 때 少陰의 月 配屬은 『太素』의 七月 배속 주장을 따르

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된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少陰을 七月에 배속한 뒤, 三陰三陽을 『素問·脈解』의 月 配屬에 근거해 도식화 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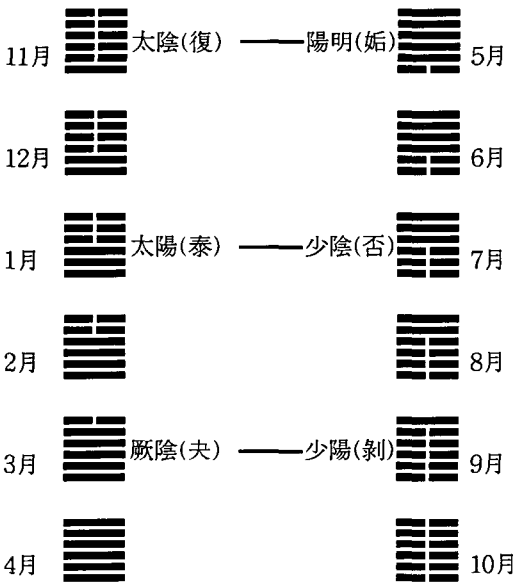


그림 1. 十二辟卦

이상의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三陰三陽은 太陰-陽明, 少陰-太陽, 厥陰-少陽의 表裏 관계에 있는 것들이 서로 마주 보고 있다. 또한 卦象이 상호간에 陽爻와 陰爻가 相反된 象을 나타내고 있다. 즉, 太陰은 復卦(☱)에 해당이 되어 初爻만 陽爻이고 나머지 다섯 爻는 모두 陰爻이다. 이 復卦에서 陽爻를 陰爻로, 陰爻를 陽爻로 바꾸게 되면 姤卦(☴)가 되어 太陽과 表裏관계에 있는 陽明이 배속 된다. 이하 少陰-太陽, 厥陰-少陽도 같은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다. 또 다른 한 편으로 厥陰(三月, 季春) - 少陽(九月, 季秋), 少陰(七月, 孟秋) - 太陽(一月, 孟春), 太陽(十一月,

仲冬) - 陽明(五月, 仲夏)로 배속이 되어 있다. 즉, 表裏를 이루는 것 끼리 겨울-여름과 봄-가을로 배속이 되어 있고, 또한 孟·仲·季의 짝으로 일관되게 배속이 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素問·脈解』의 三陰三陽에 대한 月 배속은 三陰三陽의 表裏 관계를 엮두에 둔 배속이라고 볼 수 있다.

3. 卦象과 六氣 속성의 연결

정창현은 『素問·脈解』의 三陰三陽에 대한 내용을 十二辟卦로 설명하면서, 각각의 의미를 『周易』에 나타난 卦象으로 설명하였다¹³⁾. 이에 논자는 三陰三陽의 卦象을 六氣 속성과 연계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편의상 厥陰-少陽, 少陰-太陽, 太陰-陽明을 묶어서 설명하도록 한다.

1) 厥陰과 少陽

厥陰은 三月에 배속이 되어 夬卦(☱)에 해당이 된다. 즉, 復卦(☱)에서부터 一陽이 始生하여 夬卦에 이르러 5爻까지 陽이 차올라 上爻만 陰爻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厥陰을 夬卦에 해당되는 三月에 배속한 것이다. 이 夬卦의 卦象을 厥陰의 本氣와 연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厥陰의 本氣는 風氣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風氣는 겨우내 潛藏되어 있던 精을 升發과 疏泄의 작용을 통해 펼쳐내는 기운이다. 그러므로 陽의 활동력이 강한 기운이다. 그러나 여름의 暑氣와 비교하면 陽의 강도와 밀도가 부족하고, 陽의 활동에 있어 아직까지 陰의 억제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것이 겉은 陰이지만 안에서는 陽이 5爻까지 차올라온 夬卦(☱)의 卦象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少陽은 九月에 배속이 되어 剝卦(☶)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少陽의 本氣는 相火로 無根

之火에 해당이 된다. 즉, 相火는 겉에서는 맹렬한 火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뿌리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剝卦(䷖)의 卦象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게 된다. 剝卦의 경우 겉은 陽이지만 初爻에서 5爻에 이르기 까지 모두 陰으로, 上爻인 陽爻 입장에서는 자신을 뒷받침해줄 우군 세력이 없는 형상이다. 바로 이러한 卦象이 겉은 火이지만 뿌리가 없는 相火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2) 少陰과 太陽

少陰은 七月에 배속이 되어 否卦(䷋)에 해당이 된다. 한편 少陰의 本氣는 君火로 無根之火인 相火와는 달리 火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게 된다. 水와 火는 바로 陰陽으로 자연계가 이 陰陽의 조화로 인해 정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陰陽이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水와 火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쪽으로 기운이 치성하게 되면 조화를 이룰 수 없게 되므로, 정상적인 水와 火의 상태를 “水內明而外暗, 火內暗而外明”¹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즉, 八卦에서 離卦(☲)가 火에 속하는데 내부에 陰爻를 품고 있어 陽의 獨盛을 막아주듯이 君火는 안에 陰이 존재하여 獨盛함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바로 否卦(䷋)가 四爻-上爻까지는 陽爻로 겉은 陽의 형상을 띄지만 初爻-三爻까지는 陰爻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陽의 外越하는 것을 잡아주고 있는 형상인 것이다. 한의학에서 陰陽의 상호 보완적이면서 조화로운 상태를 표현할 때 “陰平陽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陰陽의 相反된 기운을 통해 陰陽의 動的 平衡을 유지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즉, 인체 내에서 陽氣는 쉽게 外越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陰氣에 힘입어 감추어진다는 것이 “陽秘”이다. 이에 비해 陰氣는 안에서 지켜져 凝滯되기 쉬운데

활동성을 띄고 있는 陽氣에 힘입어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 “陰平”이다. 즉, 陰平陽秘는 陰陽이 서로 상대방의 작용에 힘입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 인체가 전체적으로 陰陽의 평형을 이루어 정상적인 생리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⁵⁾. 이와 같이 陰陽은 상호간에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나 陰陽의 모습은 피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에 『內經』에서는 水와 火를 陰陽의 徵兆¹⁾라고 설명하면서 水와 火를 통해 陰陽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정상적인 陽의 기능을 수행하는 火의 의미가 바로 君火인 것이다. 그러므로 陰이 안에 존재하여 猥越하려는 陽을 잡아주는 형상을 띄고 있는 否卦(䷋)가 君火에 배속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추론을 太陽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太陽은 正月에 배속이 되어 泰卦(䷊)에 해당이 된다. 한편, 太陽의 本氣는 寒水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陰을 상징한다. 즉, 八卦에서 坎卦(☵)가 겉은 陰이지만 내부에 眞陽의 의미인 陽爻를 품고 있는 象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陰은 凝滯하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어 陽의 힘을 얻어야만 凝滯되지 않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陰의 상징인 水의 모습이고, 泰卦(䷊)는 그 卦象에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太陰과 陽明

앞에서 少陰君火와 太陽寒水를 통해 水와 火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水와 火는 陰陽의 徵兆로 만물의 生長收藏을 주관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의 형상은 濕과 燥로 표현될 수 있는데, 太陰과 陽明이 바로 濕과 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十二辟卦의 卦象을 통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太陰은 十一月에 배속이 되어 復卦(☱)에 해당이 된다. 한편, 太陰의 本氣는 濕氣에 해당이 된다. 『書經』에서는 水와 火의 성질에 대해 각각 “潤下”와 “炎上”¹⁶⁾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水는 모든 사물을 적시어 주면서 아래로 흘러가는 陰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火는 위로 타오르는 陽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水와 火는 각각 陰陽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 쪽에 치우칠 경우 偏盛의 상태가 발생한다. 즉, 水火는 陰陽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 구체적인 모습은 濕과 燥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濕의 경우 泰卦(☱)로 표현되는 太陽寒水보다 좀 더 실제적인 陰의 형상이 필요하니, 初爻를 제외한 모든 爻가 陰爻인 復卦(☱)가 이에 해당이 된다.

한편, 陽明은 五月에 배속이 되어 姤卦(☴)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陽明의 本氣는 燥氣에 해당이 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火는 炎上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구체적인 모습은 燥가 된다. 그러므로 燥의 경우 否卦(☷)보다 좀 더 실제적인 陽의 象이 필요하니 初爻를 제외한 나머지 爻가 모두 陽爻인 姤卦(☴)가 이에 해당이 된다.

Ⅲ. 結 論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十二經絡의 穴數와 그 분포부위를 살펴볼 때 手經에 비해 足經의 穴數가 월등히 많다. 또한 유주하는 부위에 있어서도 足六經은 인체 전신을 周行하는데 비해, 手六經은 上肢부위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할 때 『素問·脈解』의 三陰三

陽은 足六經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 少陰의 月 配屬은 『太素』를 근거로 七月에 배속하는 것이 타당하고, 少陰을 七月에 배속할 경우, 十二辟卦에서 三陰三陽은 太陰-陽明, 少陰-太陽, 厥陰-少陽의 表裏 관계에 있는 것들이 서로 마주 보고 있다. 또한 卦象이 상호간에 陽爻와 陰爻가 相反된 象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表裏를 이루는 것끼리 겨울-여름과 봄-가을로 배속이 되어 있고, 또한 孟·仲·季의 짝으로 일관되게 배속이 되어 있다.
3. 十二辟卦에 배속이 된 三陰三陽의 卦象과 三陰三陽의 本氣의 속성이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 184-5, 116, 24.
2. 黃龍祥. 中國針灸學術史大綱. 北京 : 華夏出版社. 2001 : 486-9.
3.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8 : 315-21.
4.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5 : 622-32.
5. 吳崑.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 學苑出版社. 2001 : 211-4.
6. 張介賓. 類經.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0 : 421-6.
7.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 學苑出版社. 2002 : 325-33.
8.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 學苑出版社. 2001 : 425-33.
9. 陳大舜, 曾勇, 黃政德 譯. 맹웅재, 박현국, 박경

『素問·脈解』의 三陰三陽 月 配屬과 經絡 表裏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 남, 김남일, 신영일, 김용진 등 옮김. 各家學說. 서울 : 대성의학사. 2001 : 46-7.
10. 山田業廣. 素問次注集疏. 北京 : 學苑出版社. 2004 : 681.
11.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 192.
12. 李容範. 楊上善의 三陰三陽 學說에 대한 연구.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6 ; 10 : 450, 456-8.
13. 丁彰炫. 『內經』의 月令(四時)-신체 부위 배속에 대한 易學的 해석.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9 ; 12(2) : 82-5.
14. 胡廣 等纂修. 性理大全. 山東 : 山東友誼書社. 1989 : 1865.
15. 방정균. 한의학의 관점에서 살펴본 건강의 개념.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6 ; 20(5) : 1113.
16. 書經. 대전 : 學民文化社. 1990 : 336.